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to th Usage Level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System

김석규(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대학원 경영학과)

wesley@digital.re.kr

요약

병원정보화는 단순히 운영적 차원의 전산시스템이기 보다는 조직의 전략적 우위 확보의 차원에서 활용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정보시스템의 하위체계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모든 정보시스템과 연결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s System)은 병원경영 전략정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 부각과 더불어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처방전달시스템(OCS)의 구축과 함께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활용한 환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병원의 수익성 개선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정보시스템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 및 사용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확산을 위한 정책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영향변수(지역특성, 조직특성, 경영진과 의사특성, 경제특성, 법/행정특성, 기술특성, 기관수준별 서식 표준화 특성, 정부정책, 경영진의 경영 마인드, 경영진의 시스템 사용의지, CIO 존재 여부)를 선정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108개 종합병원 의무기록실 간부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5개의 설문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 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던 법적 요인과 서식표준화 요인, 경제특성 I 요인(초기투자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은 검증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단지 기초통계량에서 다른 요인들보다 다소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반면, 경영진과 의사(Medical Doctor)특성요인은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오므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이 시스템 구축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선정한 요인 중에서 경제특성 II 요인으로 간주하였던 ASP 활용 활성화 요인은 유의수준 1% 내에서 매우 높은 유의함을 보여주었고, 기술특성요인(음성인식기술 발달 및 확산)과 의료기관수준별 서식표준화요인은 5% 내에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그 외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수준과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요인으로, 광역시 이상에 소재 하는 의료기관의 사용수준이 1단계 정도 높았다. 이는 대도시에 소재 하는 의료기관일수록 앞선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특성용인 중에서는 병원의 유형이 종합전문병원일수록, 병상규모가 클수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발견된 사항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경영진들이 병원정보화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의 의견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경을 조성하고, 병원정보화 평가 시 경영진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 항목에 높은 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구축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산환경과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기술표준화와 의료기관수준별로 의무기록서식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이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청부차원의 표준화 관련 전담기구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법인 등으로 설립된 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의료정책을 개발하여 절감된 재원을 병원정보화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료기관세제정책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